

KIA의 '미래' 김도영·정해영 '패기'로 순위 싸움 이끈다

김도영, 최고의 테이블 세터
"공 잘 보여 배트 잘 돌아갑니다"
정해영, 돌아온 KIA의 마무리
"중요한 순간 좋은 활약 해야죠"



부담을 덜어낸 KIA 타이거즈 투·타의 '미래'가 순위 싸움의 전면에 선다. KIA의 연승 질주에는 베테랑의 힘이 있었다. 최형우와 나성범이 묵묵한 활약으로 타격에 불을 붙였고, 부상 약재가 발생한 선발진에서는 재중전의 시간을 보냈던 양현종이 돌아와 힘을 보태었다. 설 틈 없는 잔여경기 일정은 소화하고 있는 KIA의 순위 싸움에 베테랑의 노련함과 함께 젊은 패기도 필요하다. '테이블 세터' 김도영과 '마무리' 정해영이 경기의 시작과 끝을 책임져줘야 한다. 두 선수에게는 부담 많았던 올 시즌이다. 프로 2년 차 김도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IA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선수 중 한 명이었다. 김도영은 입단 전부터 한화 문동주와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화제의 이름이 됐고, 프로 첫 시범경기에서 고졸 루키 첫 타격왕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프로의 벽을 실감하기도 했고 시즌 초반 꾸준한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아쉬움 속에 시즌 첫 시즌을 마무리했다. 올 시즌에도 김도영은 뜨거운 이름이었다. 지난 시즌 경합을 바탕으로 스프링캠프에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핵심 선수로 떠올랐다. 그리고 SSG와의 개막 시리즈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면서 KIA 공격의 한 축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나성범



김도영

도 긴 부상에 시달린 사이 KIA의 답답한 공격이 계속됐고, 2년 차 김도영에 다시 시선이 쏠렸다. 해결사가 필요했던 팀 내 상황과 일부 팬들의 극성 팬덤까지 더해지면서 승부욕 강한 고졸 2년 차 김도영의 어깨는 더욱 무거웠다. 고졸 4년 차 정해영도 올 시즌 힘든 순간이 많았다. 프로 첫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필승조로 자리를 잡은 정해영은 프로 두 번째 시즌 마무리라는 중책을 맡았다. '최후의 보루'로 부담 많은 역할을 해왔던 정해영은 올 시즌에는 스피드 고민에 빠졌다. 위기의 봄날을 보냈던 정해영은 결국 5월 29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예상보다 긴 재정비 시간을

보낸 정해영은 7월 1일에서야 1군으로 돌아왔다. 복귀 후 7월 한 달 8경기에 나와 6.2이닝을 소화하면서 1.35의 평균자책점으로 4세이브 1홀드를 수확했지만 8월 2일 삼성전에서 0.1이닝 3실점의 패전투수가 되기도 했다. 세이브 수확도 한 동안 중단됐지만 정해영은 8월 25일에 이어 27일 한화전에서 연달아 세이브를 수확했다. 정해영은 9월 첫 등판이었던 3일 SSG전에서도 탈삼진 하나 더한 삼자범퇴로 시즌 13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돌아 합쳐 프로 6년 차. 부담감은 덜고 영건의 패기를 보여줘야



정해영

한다. 김도영은 "오버해서 생각하면서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니 내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며 "생각을 바꿨다. 팀도 이기고 있는데 밝게 내려놓고 할 것 하지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최근 변화를 이야기했다. 지난 여름 쉬 없이 달렸던 김도영은 체력적인 부담에서도 벗어난 모습이다. 김도영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느꼈다가 보다는 배트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체력이 떨어졌다는 걸 느꼈는데 이제는 괜찮다. 지금은 다시 좋을 때처럼 공도 보이고 배트도 잘 나온다"며 "좋아

질 때 됐으니 좋아했다고 생각하고, 야구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정해영도 최근 경기들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정해영은 "8월을 잘 마무리했던 것 같다. 힘이 좀 있었다. 세이브라는 게 한번에 했다가, 함참 못할 때도 있다. 지금은 워낙 우리 팀 방망이가 좋으니까 다음 세이브 상황을 위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상 준비는 잘하고 있다. 시즌이 몇 경기 안 남았는데 나로 인해 경기를 지면 뼈아플 것 같아서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요한 순간 좋은 활약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내일 웨일스와 대결...클린스만호 첫 승 도전

차두리 코치 합류

9월 A매치 2연전의 첫 상대인 웨일스와 대결을 이틀 앞두고 클린스만호 태극전사들이 모두 모여 첫 완전체 훈련을 했다. 대한축구협회가 6일 공개한 축구 대표팀 훈련 동영상을 보면 25명의 태극전사는 현지시간으로 5일 오후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 인터내셔널 스포츠 캠퍼스에 모여 본격적으로 이달 A매치 2연전(한국시간 8일 웨일스·13일 사우디아라비아) 대비에 나섰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번 두 차례 A매치에서 '클린스만호 마수걸이 승리'에 도전한다. 클린스만호는 3월 2연전(우루과이 1-2 패·콜롬비아 2-2 무)과 6월 2연전(엘살바도르 1-1 무·페루 0-1 패)까지 4차례 경기에서 2무 2패의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외국인 지도자가 대표팀을 맡은 이후 4경기째 승리가 없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이다. 대표팀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 팬들은 국내에 머물기보다 해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클린스만 감독의 '근태 상황'에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결국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화려한 승리뿐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16강 진출을 지휘한 파울루 벤투 감독도 역시 부임 이후 월드컵 직전까지 '빌드업 축구'를 놓고 언론과 팬들로부터 '고집불통'이라는 혹평을 받아야만 했다.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1무 1패에 그쳐 탈락 위기에 놓였지만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극적으로 꺾고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자 벤투 감독을 향한 비난은 '우직한 독심'이라는 칭찬으로 바뀌었다. 결국 결과가 모든 것을 '해피 엔딩'으로 바꾼 것이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다를 바 없다. 태극전사의 지휘자 역할을 맡고 2무 2패에 그쳤지만, 9월 A매치 2연전에서 승리를 따낸다면 '기다림'을 달가워하지 않는 여론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클린스만호는 이달 A매치를 앞두고 분위기가 전환 차원에서 내적 변신도 시도했다. 벤투호 시절부터 대표팀에 있었던 마이클 김 코치와 결별하고 클린스만호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5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 카디프 인터내셔널 스포츠 캠퍼스에서 9월 유럽 원정 친선경기를 앞두고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맡아왔던 차두리를 코치로 합류시켰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선수들의 '큰형' 이미지인 차두리 코치가 합류하면서 클린스만 감독과 태극전사들의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클린스만호가 한국시간 8일 오전 3시 45분 상대할 웨일스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5위로 한국(28위)보다 조금 낮다. 상대 전적에서는 2003년 딱 한 번 만나 0-0으로 비긴 바 있다. 이번이 20년 만이자 두 번째 맞대결이다. 웨일스 대표팀에는 국내 팬들에게도 낯익은 선수들이 많다. 클린스만호의 '캡틴' 손흥민과 토트넘(잉글랜드)에서 9시즌째 한술밥을 먹고 있는 수비수 벤 데이비스를 비롯해 최근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22세 골잡이' 브레넌 존슨도 팬들에게 반가운 얼굴이다. 또 토트넘에서 뛰다가 임대를 떠난 수비수 조던 리즈(유나이티드)까지 손흥민과 '토트넘 인연'으로 묶인 선수가 3명이나 된다. /연합뉴스

여기에 웨일스의 주장이자 아스널(잉글랜드)과 유벤투스(이탈리아) 등에서 활약했던 2선 공격자 윈 에런 램지(카디프시티)도 태극전사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웨일스를 상대할 태극전사들의 상황은 나쁘지 않다. 대표팀 공격을 진두지휘할 손흥민은 소속팀에서 헤트트릭을 작성하고 합류했고,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 부상으로 우려를 자아냈던 황희찬도 시원한 헤더골을 맞췄다.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던 조규성 역시 풀타임 출전과 공격포인트 작성으로 완전한 회복을 알렸다. 공격전에 세바람을 불어 넣은 '젊은파' 홍현석(헨트)도 3일 멀티골을 맞췄다. 여기에 기존 소속팀과 갈등으로 망고생을 했던 미드필더 황인범(스베츠다)은 새 동지를 찾고 기분 좋게 대표팀 유니폼을 입으면서 웨일스전을 앞둔 클린스만호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KBO 신인 드래프트...KIA 최대 10명 선발

KIA 타이거즈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 얼굴들이 14일 공개된다. KBO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 KBO 신인 드래프트를 연다. 전면 드래프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명은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이뤄진다. 지명은 2023년도 구단 순위 역순으로 이뤄지면서 한화-두산-롯데-삼성-NC-KIA-KT-LG-기움-SSG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KIA는 6번째로 지명 선수를 호명하게 되며, 최대 10명을 선발할 수 있다. 11라운드까지 지명이 진행되지만 KIA는 지난해 11월 포수 주효상을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기움에 2024 2라운드 지명권을 넘겼다. 반면 기움은 최대 14명, NC는 12명을 선발할 수 있다. 트레이드 시 구단이 다음 연도 지명권을 선수와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약에 따라 지명권을 양

수 받은 기움은 LG, KIA, 삼성이 가지고 있던 각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NC는 한화로부터 7라운드 지명권을 넘겨받으면서 12명까지 선발할 수 있다. 지명권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했던 KIA와 LG, 삼성, 한화는 10명, 그 외 구단들은 11명의 선수를 지명하게 되면서 총 110명이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고졸 졸업 예정자 782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96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5명 등 총 1083명이다. 대학 졸업 예정자 중에는 얼리드래프트 41명이 포함됐다. KBO는 지난해부터 얼리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해 4년제(3년제 포함) 대학교 2학년 선수에게도 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이번 드래프트 현장에는 야구팬들에게 개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향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캡틴'은 백승호

와일드카드 박진섭·설영우 선발 백승호 "책임감 갖고 금메달 도전"

향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할 '황선홍호'의 주장으로 와일드카드 미드필더 백승호(26·전북)가 낙점됐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향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주장으로 백승호가 선임됐다고 6일 밝혔다. 백승호는 박진섭(전북), 설영우(울산)와 더불어 이번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로 승선한 멤버다. 박진섭은 1995년생, 설영우는 1998년생으로, 백승호는 나이로는 대표팀 내 두 번째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백승호는 스페인 지로나, 독일 다름슈타트를 거쳐 2021년부터 K리그1 전북 현대에서 뛰고 있다. 2017년 20세 이하(U-20) 월드컵 등에 출전했던 그는 2019년부터 성인 국가대표로 뛰며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A매치 15경기에 출전해 3골을 기록했다. A매치 특종 중 한 골이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과의 16강전(1-4 패)에서 나온 중거리 포였다. /연합뉴스



백승호

백승호는 5일 대표팀 훈련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와일드카드로 뽑혀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선수들과 빨리 친해지고 발을 잘 맞춰서 뭉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표팀에서 코치진과 선수 간 고교 역할을 하게 됐다. 백승호를 보좌할 부주장으로는 수비수 이재익(24·서울 이랜드)이 뽑혔다.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친 이재익은 2019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 멤버로, 지난해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을 통해 성인 국가대표로도 데뷔했다. 4일부터 창원에 모여 아시안게임을 향한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한 대표팀은 13일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로 옮겨 훈련을 이어가다가 16일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E조에 속한 한국은 19일 쿠웨이트, 21일 태국, 24일 바레인, 중국 저장성 진화스포츠허스타디움에서 차례로 맞붙는다. /연합뉴스